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5/15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오늘(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맘때 생각나는 선생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돌이켜보면 학교는 따뜻하고 감사한 곳, 그리운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은 과도한 사교육, 입시 경쟁, 학교폭력, 공교육 붕괴와 같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신음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6~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5월 6~9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
5.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 36%
- ‘경쟁/입시 위주’ 16%, ‘교육정책 일관성 부족’ 11% -
-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54% > 반대 27%
-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82%
-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9%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 36%

- '경쟁/입시 위주' 16%, '교육정책 일관성 부족' 11% -

한국갤럽이 지난 5월 6~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에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사교육 위주/학원/과외 문제'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쟁/입시 위주 교육' 16%, '입시 제도/정책 일관성 부족' 11%,

'학교 폭력/왕따 문제' 8%, '공교육 부실/교내 질서 문제' 8% 순으로 응답됐다.

경쟁/입시 위주 교육이 사교육을 양산하고, 공교육 부실화가 사교육과 연계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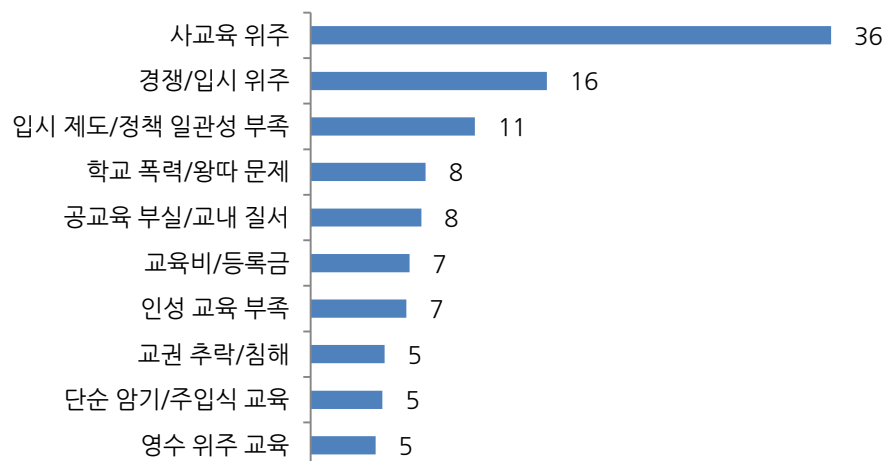
교육 문제는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가정 경제에 실질적 부담을 끼치는 '사교육'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30대(46%)와 40대(46%),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51%)에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경쟁/입시 위주 교육을 문제로 지적한 사람은 20대(2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들은 최근 대입 경쟁을 치렀고 이제 더 혹독한 입사 경쟁을 앞두고 있다.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위 10위, 2개까지 자유응답,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으로요? (2 개까지 자유응답)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위 5위, 2개까지 자유응답,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사교육 위주	경쟁/입시 위주	입시제도/ 정책일관성	학교폭력/ 왕따문제	공교육 부실 교내 질서
전체		1,210	36	16	11	8	8
성별	남성	599	35	18	11	7	8
	여성	611	38	15	12	10	7
연령별	19~29세	216	29	<u>26</u>	9	6	7
	30대	242	<u>46</u>	18	11	7	8
	40대	268	<u>46</u>	19	<u>14</u>	7	<u>12</u>
	50대	239	33	13	<u>15</u>	10	4
	60세 이상	245	27	6	9	10	7
초중고 자녀유무	자녀 있음	284	<u>51</u>	17	<u>15</u>	8	<u>12</u>
	자녀 없음	926	32	16	10	8	7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54% > 반대 27%

박근혜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과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3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특히 각종 학교 시험, 고교, 대학 입시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찬반을 묻은 결과 ‘찬성’ 54%, ‘반대’ 27%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에 달했다.

선행학습금지법 찬성 의견은 30/40대(59%/57%), 초중고 학부모(61%)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인식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반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의견유보
전체		1,210	54	27	19
성별	남성	599	55	29	16
	여성	611	52	26	22
연령별	19~29세	216	54	<u>36</u>	10
	30대	242	<u>59</u>	32	9
	40대	268	<u>57</u>	28	15
	50대	239	52	22	26
	60세 이상	245	46	20	34
초중고 자녀유무	자녀 있음	284	<u>61</u>	25	14
	자녀 없음	926	52	28	21

질문) 최근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발의됐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학교와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82%

학교 내에서는 교권, 교육 환경과 학생 자율권이 충돌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가 82%, ‘지나친 간섭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가 13%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40대 이상, 초중고 학부모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찬성 의견이 90%에 육박했으나 20대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이 3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은?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학교에 가면 퇴교 시까지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지나친 간섭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모름/의견유보
전체		1,210	82	13	5
성별	남성	599	78	17	6
	여성	611	86	10	4
연령별	19~29세	216	63	32	5
	30대	242	79	16	5
	40대	268	87	9	4
	50대	239	89	6	5
	60세 이상	245	90	5	5
초중고 자녀유무	자녀 있음	284	89	9	2
	자녀 없음	926	80	15	6

질문)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한 보기 중 선택)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9%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가 79%,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 16%로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도 허용 의견이 다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교육적 체벌’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교내 질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은?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	모름/의견유보
전체		1,210	79	16	5
성별	남성	599	82	15	4
	여성	611	76	17	7
연령별	19~29세	216	77	20	3
	30대	242	78	17	4
	40대	268	74	20	6
	50대	239	84	10	6
	60세 이상	245	80	13	7
초중고	자녀 있음	284	77	19	4
자녀유무	자녀 없음	926	79	15	6

질문) 귀하께서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한 보기 중 선택)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